

스포츠의 발전은 ‘청렴’으로부터

“저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어린 시절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

1999년 한 소년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축구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축구 선수 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지금과는 다르게 그 당시 스포츠계 분위기는 지도자들의 폭언 욕설과 접대 문화가 당연시되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접대와 촌지를 통해 경기에 출전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는 흔한 일이기도 했다.

축구 선수 생활은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어졌고, 나는 팀에서 주장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내가 주장이었기 때문에 학교 전통에 따라 학부모 회장을 맡으셨다.

모든 선수에게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대학 진학이 결정되면서 10년간 해 왔던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 가느냐, 그만두느냐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부모님 입장에서 자기 자식의 미래를 위해 접대와 촌지는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우리 학교는 나름 명문 고등학교로서 여러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이뤄 냈다. 그리고 나는 팀의 주장으로서 조금씩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게 되었다.

어느 날 감독님을 통해 대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고 전해 들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이었기에 날아갈 듯 기뻐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부모님께 전했고, 부모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셨다.

시간이 지나고 학기 말, 대학 진학 결정을 위한 학부모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는 3학년 선수들이 어느 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어디로 진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감독님과 학부모의 회의이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시지 않았다. 바쁜 일이 있으셔서 오시지 못했나 하는 생각에 전화를 드렸지만, 학부모 회

의가 있다는 소식을 못 받았다고 하셨다. 의아했다. 아버지께서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는지 감독님과 통화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학교로 찾아오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감독님을 만나셨고, 감독님 방으로 들어가셨다.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싶지 않았지만, 조금씩 대화가 밖으로 흘러나왔다.

“감독님!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아직 대학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물으셨다. 그러자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님께서서는 학부모 회장으로서는 해준 게 뭐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결국 큰 언쟁으로 이어졌다.

그 당시 학부모 사이에서 감독님께 잘 보이기 위해 접대와 뒷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만, 아버지께서는 일절 하시지 않았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고, 나의 대학 입학은 조금씩 어두워졌다. 큰 상처를 받은 나는 축구를 그만두게 될까 두려웠다.

어머니께서도 아들이 축구를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많은 걱정을 하셨다. 그 당시 많은 운동선수들이 고등학교 시절 운동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집안 형편 또한 좋지 않았기에 어머니께서는 항상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다.

“아들, 미안해. 엄마 아빠가 부유했다면 우리 아들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었을 텐데 미안하다.” 어머니께서는 다른 부모들처럼 많은 지원을 해 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속상해하셨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완강하셨다. 그러곤 버럭 하를 내시곤 했다. “돈 써서 자기 자식 선수 만들려는 썩어 빠진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 스포츠가 발전이 없는 거야!”

돈 주고 진학할 실력이라면 진학을 해도 경쟁 세계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나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되었다.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던 나는 방에 들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대학 입학 적신호로 인해 우울해 있던 나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하늘이 도왔는지 이전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한 덕분에 U-20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고, 기성용, 이청용 선수 등 여러 훌륭한 선수들과 국제대회에까지 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기회로 감독님의 도움 없이 다른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대학에서 4년간 열심히 했던 훈련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K리그에 입단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운재, 지동원 등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행복한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어느덧 30대가 된 나는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새로운 꿈을 준비하고 있다. 12년 전 집에 돈이 없어서 그리고 아버지의 완강한 태도에 정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그 대학의 체육학 박사 과정에 입학했다. 그 누구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말이다.

입학 합격 후 가장 좋아하신 분은 바로 아버지였다.

“아들아, 축하한다. 이 합격은 너의 힘으로 이룬 결과란다. 자랑스럽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한 학기 등록금을 흔쾌히 내 주셨다. 어머니 또한 너무나 기뻐하셨다.

“엄마 아빠의 능력 부족으로 좋은 대학에 보내 주지 못해 가슴 한쪽에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아들, 너무 고마워.”

부모님께서서는 정직함을 선택하셨지만, 슬퍼하는 아들에게 미안함과 선택에 대한 조금의 후회도 가지고 계셨던 것 같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의 정직함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내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시절 나의 능력이 아닌 편법으로 인생의 한 단계를 올라갔더라면, 나는 발전 없는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미래를 위해서 아버지가 힘써 주기를 바랐고, 감독님께 잘 보여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길 희망했다. 이 과정이 스포츠계가 ‘청렴’하지 못하는 원인인지도 모르고 말이다.

나의 꿈은 체육 분야의 교수, 축구 해설위원, 그리고 선수들을 지도하는 축구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좋은 교육을 통해 훌륭한 선수를 배출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기도 하다.

새로운 꿈을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께서서는 항상 말씀하신다.

“아들아. 네가 예전에 겪었던 상황을 그 누가 또다시 겪도록 만들지 마라. 너는 깨끗한 교육자가 되어라.” 이 말은 하나의 목표가 되기에 충분했고, 내 가슴속 깊이 새겨졌다.

과거 접대와 촌지를 통해 경기에 출전시키고,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는 게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현실이었다면, 이제는 선수를 돈으로 보지 않고 실력과 간절함만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운동 환경으로 변해야 한다.

2002년 우리는 월드컵 4강이라는 기적을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히딩크 감독님의 실력과 열정만으로 선수를 평가하고 선발하겠다는 청렴한 신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스포츠의 발전은 청렴한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스포츠 강국의 대한민국, 깨끗하고 따뜻한 스포츠 환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스포츠의 발전은 청렴으로부터!”